

목 차

I. 들어가는 말

1. 倭亂과 胡亂에 抗拒한 義兵	1
2. 韓末의 義兵과 乙未事變	1
3. 斷髮令	1

II. 韓末 義兵將이 부른 悲歌

1. 湖西義陣

1) 柳麟錫 〈江華洋亂〉	2
2) 柳麟錫 〈論義員〉	3
3) 柳麟錫 〈憂國〉	3
4) 李康季 〈銃傷을 입고〉	4
5) 李康季 〈獄中에서〉	5
6) 李康季 〈形場에서〉	5
7) 李麟榮 〈臨絶詩〉	5
8) 許蔭 〈奉勅義陣解散之命感吟 ○丙申〉	6
9) 許蔭 〈拔病齒有感 ○丁未〉	6
10) 李殷瓚 〈辭世詩〉	7

2. 嶺南義陣

11) 鄭煥直 〈絶命詩〉	8
12) 崔山斗 〈絶命詩〉	8
13) 申芑石 〈憂國〉	9
14) 李晚燾 〈庚戌八月二十日夜口占絶食已七日〉	10
15) 李晚燾 〈九月初二日夜口占〉	11
16) 金道鉉 〈三虞를 지나고〉	12
17) 金道鉉 〈寧海 泣嶺을 넘으며〉	12
18) 金道鉉 〈絶命詩〉	13

3. 洪州義陣

19) 李南珪 咏史十首	14
20) 金福漢 〈次李俔韻〉	16
21) 李俔 〈聞安炳瓚舉義〉	17
22) 林翰周 〈洪陽紀事〉	17
23) 崔益鉉 〈日獄中默會 五絶○十四首〉	18
24) 林炳瓚 〈敵陣에서〉	20
25) 崔相集 〈次勉菴韻〉	20
26) 李相斗 〈次勉菴韻〉	21
27) 安恒植 〈次勉菴韻〉	21

4. 湖南義陣

28) 申德淳 〈獄中에서〉	22
29) 李錫庸 〈流刑詩〉 19수 중 其三	23
30) 全垂鏞 〈臨絶詩〉	24
31) 沈南一 〈義兵을 解散하면서〉	25
32) 沈南一 2 〈訣故國江山〉	25

5. 기타

33) 黃鉉 〈絶命詩〉 四首 중 其一	26
黃鉉 〈絶命詩〉 四首 중 其三	26
34) 安重根 〈舉事歌〉	27
35) 金澤榮 〈聞義兵將安重根報國讐事〉 其二	28
36) 孫文	29
37) 袁世凱	29

III. 마무리	30
----------	----

義兵의 悲壯한 노래

I. 들어가는 말

1. 倭亂(왜란)과 胡亂(호란)에 抗拒(항거)한 義兵(의병)

국가가 외침을 받아 위급할 때 국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자위군. 국가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원 중군하는 민군(民軍)이다. 의병의 전통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었으며, 고려·조선 시대를 거쳐 조선 말기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조선 말기의 의병은 항일 독립군의 모태가 되었다.

유인석의 堤川義陣, 李康季의 聞慶義陣, 許蔭의 金山義陣, 金道鉉의 英陽義陣, 金福漢의 洪州 7義士, 鄭煥直의 山南義陣, 申堧石의 寧海陣 등과 같이 특정 지역을 중심 기지로 하여 의병 전투가 전개했다.

2. 韓末(한말)의 義兵(의병)과 乙未事變(을미사변)

1895년 8월 20일(양력 10월 8일) 새벽 일본의 공권력 집단이 서울에서 자행한 조선왕후(명성황후) 살해사건. 明成皇后弑害事件(명성황후 시해사건)이라고도 한다. 사건 당시 서울 현지에서 이를 지휘한 일본측 최고위 인물은 부임한지 37일밖에 안되는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檠)였으며, 주요 무력은 서울 주둔의 일본군 수비대이고, 행동대는 일본공사관원, 영사경찰, 신문기자, 낭인배 등이었다.

이들은 미우라의 직접 지시하에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을 기습하여, 고종의 왕후인 중전 민씨(1897년 명성황후로 추존)를 참혹히 살해하였다. 그리고 시신은 근처의 숲속으로 옮겨 장작더미 위에 올려 놓고 석유를 부어 불태워 버렸다. 그런데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견이 분분하다.

3. 斷髮令(단발령)

1895년(고종 32) 11월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내린 명령. 조정에서는 1894년 7월부터 김홍집을 위시한 온건개화파들의 주도로, 조선조 전래의 문물 제도를 개혁하려는 일련의 근대화 운동이 추진되어, 정치·사회·경제 등 제반 분야에 걸쳐서 대대적인 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 기간 중이어서 미처 개혁운동에 간섭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일본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그러나 1895년 3월(양력 4월), 청일전쟁의 결과로 야기된 삼국간섭으로 일본이 한발짝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자, 조정에서는 배일친로정책(排日親露政策)을 표방하게 되었다.

여기에 당황한 일본은 8월 20일 을미사변을 일으켜 배일 세력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온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국제적 범죄를 자행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었다.

II. 韓末 義兵將이 부른 悲歌

1. 湖西義陣(호서의진)

1) 柳麟錫 <江華洋亂>

昇平世久恬嬉存
報急沁城洋祲昏
都民鳥散震宸念
壯士雲興重國恩
大老首陳當戰策
在廷從息去邠論
仗義出群梁帥去
分明天佑樹功勳

2) 柳麟錫 <論義員>

竭心盡力惟吾爾
利刃鈍兵且次之
只患淺深誠未到
莫云強弱勢難爲
有名禮義朝鮮國
徒尚欺邪海島夷
傾否虧盈天可待
克修人事念言茲

3) 柳麟錫 <憂國>

憂國復憂國
天涯老白頭
春風儻借力
吹散濟山憂

* 雲崗 李康季(1858~1908)

구한말 의병장 윤강(雲岡) 이강년(李康季)은 일제 침략군에게 큰 타격을 주어 성망이 높았다. 당시 의병장으로서 북관의 홍범도, 평북의 채응언, 조병준, 영남의 허위, 이강년, 경기의 민궁호, 호남의 김해산, 문태수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을 대량으로 사살하여 의병사에 금자탑을 세운 분이 이강년 의병대장이다.

1859년(무오년) 12월 30일 문경군 가은면 도태리에서 아버지 기태(起台) 선생과 어머니 의령 남씨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천품이 뛰어나고 영민하여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천재로, 儒學(유학)과 兵書(병서)에 조예가 깊었다. 어린 나이에 무과에 급제하여 용양위부사과에 제수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삭발령이 내려지자, 충의심에 불타는 지사들이 각지에 통문을 살포하고 의병을 일으켰다.

4) 李康季 <銃傷을 입고>

丸子太無情
 踝傷足不行
 若中心腹裏
 母辱到瑤京

5) 李康季 <獄中에서>

五十年來判死心
臨難豈有苟求心
盟師再出終難復
地下猶餘冒劍心

6) 李康季 <形場에서>

我國二千萬民
將次第受死必
如我以是爲痛

7) 李麟榮 <臨絶詩>

分明日月懸中州
四海風潮濫 流
蚌鷓緣何相持久
西洲應無漁人收

8) 許薦 <奉勅義陣解散之命感吟 ○丙申>

湖南三月李花飛
報國書生解鐵衣
山鳥未知時事急
終宵喚我不如歸

9) 許薦 <拔病齒有感 ○丁未>

生爲天地丈夫兒
三十齒牙如鐵錐
莫厭咬根宜做事
常思啖肉可除讐
千年古木中心敗
萬里長城一面虧
不以前功貽後患
回看鍾室正堪悲

* 李殷瓚(1878~1909)

이강년, 이인영, 허위 등과 같이 항일투쟁을 전개한 인물로 李殷瓚(1878~1909)이 있다. 그는 강원도 원주군 부흥사면(原州郡 富興寺面)에서 출생하였으며, 본은 전주(全州)이다. 유생으로 을미의병 때 홍천에서 봉기하였고 정미의병 때 이인영, 이강년, 허위 등과 함께 서울 진격을 결행하였으며 뒤에 병세의 부진으로 간도에 들어가 양병하려 했으나 밀정의 고발로 체포되어 다음과 같은 臨絶詩를 남기고 순절하였다.

10) 李殷瓚 <辭世詩>

一枝李樹作爲船
欲濟蒼生泊海邊
未得寸功身先溺
誰算東洋樂萬年

의병 전쟁 초기부터 일어나 줄곧 항전을 계속한 것을 오얏나무 가지 하나로 배를 만들어 온 겨레를 건져내고자 하였다고 표현하여 그 일이 처음부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음을 말하고, 그러나 자기 한 몸을 바쳐 싸웠는데 스스로는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했다고 하였다. 동양 평화는 조선이 주권을 되찾아 독립함으로써 이룩되는 것인데 동족에게 배신당하고서 죽음에 임하여 침몰 직전에 있는 나라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2. 嶺南義陣(영남의진)

11) 鄭煥直 <絶命詩>

身亡心不變
義重死猶輕
後事憑誰託
無言坐五更

12) 崔山斗 <絶命詩>

國家破亡已有年
尚存一縷愧蒼天
丈夫自此知歸所
殷有夷齊齊有田

* 申堯石(1878~1908) <憂國>

영남 의병 가운데 그 활약이 가장 두드러져서 전설적 인물이 된 평민 의병장 신돌석이 있다. 본명이 泰浩이나 사람들은 그의 용맹을 사랑하여 아명 '돌석'을 더 즐겨 불렀으며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평해의 월송정에 올라 지은 한시이다.

13) 申堯石 <憂國>

登樓遊子却忘行
 可歎檀墟落木橫
 男兒二七成何事
 暫倚秋風感慨生

* 李晩燾(1842~1910)

1894년 동학(東學)과 일련의 개혁 정치를 모두 '야'로 인식하고 척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위정척사 운동은 1895년(고종 32) 의병 운동으로 이어졌다.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안동에 전해지면서 의병을 일으킬 움직임이 일어났다. 안동에서 의병 봉기를 촉구하는 첫 통문은 선성(현 예안면)에서 나왔는데, 1896년 1월 13일 이만응(李晩鷹)·금봉술(琴鳳述)·이만윤(李晩允)을 비롯한 223명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14) 李晩燾 <庚戌八月二十日夜口占 絶食已七日>

舉目山河異
顛天那復階
却慚匹夫諒
無計報涓埃

我雖無所學
所學驗於今
後人宜勉勵
本分更欽欽

15) 李晩燾 <九月初二日夜口占>

胸中葷血盡

此心更虛明

明月生羽翰

逍遙上玉京

閣瘦茅簷坐

川淙夜深深

萬理雖未淨

寧順自安心

* 金道鉉(1815~1914)

碧山 金道鉉은 英陽에서 붕기하여 권세연의 안동 의병과 민용호의 관동 의병과도 합류하여 싸웠으며, '왜인이 이 땅에 있는 한 항전을 포기할 수 없다.'하여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을미의병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저항하였다. 후기 의병 때도 여러 차례 기병하려다가 체포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왜적에 대항하여 함께 싸웠던 이만도의 죽음을 애통해 하다가 부친상 후鬻을 마친 뒤 1914년 동짓달 새벽 동해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나라에 바쳤다. 그의 의병항쟁기록으로 <碧山先生 倡義眞末>이 전하며 많은 絶命詩를 남겼다.

16) 金道鉉 <三虞를 지나고>

晚死死何地
舊國無餘疆
魯連數千載
明月猶有光

17) 金道鉉 <寧海 泣嶺을 넘으며>

大海天地路
恨無一人從
歸報祖宗國
無窮建我東

18) 金道鉉 <絶命詩>

我生五百年
赤血滿腔腸
中間十九歲
鬚髮老秋霜
國亡淚未已
親沒痛更傷
獨立故山碧
百計無一方
欲觀萬里海
七日當復陽
白白千丈水
足吾一身藏

3. 洪州義陣(홍주의진)

* 李南珪(1855~1907)

이남규(1855~1907) 선생의 본관은 한산(韓山), 호는 수당(修堂)이다. 선생은 항상 ‘사가살 불가욕(士可殺不可辱) : 선비는 죽일 수 있으나 욕보일 수는 없다.’는 정신으로 살아왔다고 전한다.

궁내부 특진관을 지낸 수당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항일 의병에 참여해 홍주(지금의 홍성) 전투에 장남 이충구와 함께 선봉이 되었다. 1906년 병오의병 때 홍주의병장 민종식(閔宗植)을 숨겨 주어, 1907년에 공주 감옥에 투옥되어 부자가 왜병에게 붙잡혀 한 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 선생과 아들(당시 33세)과 함께 피살되었다. 손자 이승복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19) 李南珪 咏史十首

“시절에 느껴 꽃을 보아도 눈물이 흐르고, 이별이 한스러워 새소리에도 마음이 놀라라.[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의 열 글자¹⁾로 운을 삼았다.

魯連眞男子

理義充肝膽

凜然蹈海語

千載令人感

律令與身藏

陳咸不出家

山中有古梅

獨爲漢臘花

1) 杜甫의 〈春望〉 시에 “國破山河在，城春草木深。感時花濺淚，恨別鳥驚心.”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杜少陵詩集 卷4》

士固重其身
非謾亦非僞
孔明出山前
豈少憂時淚

青巖高莫攀
拒賊待刀決
歎息王右丞
世緣惜一別

* 金福漢(1860~1924)

志山 金福漢(1860~1924)은 강직한 관료 출신으로 을미의병 때 홍주의진의 대장에 추대되어 홍주성을 점거하고 한 때 그 기세를 크게 떨쳤다. 그러나 거짓 의병진에 가담한 관찰사 李勝宇의 배신으로 체포 투옥되었고 정미의병 때 閔宗植과 홍주에서 다시 일어나 싸웠으며 李俠, 安炳瓚, 宋秉稷, 李相麟, 洪樾 등과 홍주 6義士로 불리었다.

20) 金福漢 <次李俠韻>

獨坐悄然讐公談
面牆無路見終南
報國人少堅如竹
誤國姦多醜似藍

21) 李僎 <聞安炳瓚舉義>

誰家義旅赴洪東
云是當年刎頸公
可笑時人休竊笑
坐談龍肉有何功

22) 林翰周 <洪陽紀事>

志士不忘在溝壑
勇士不忘喪其元
寧作斷頭鬼
不爲削髮人

* 崔益鉉(1833~1906)

유인석과 함께 한말 의병을 대표하는 인물이 勉菴 崔益鉉(1833~1906)이다. 그는 이항로의 문하에서 배출된 척사파의 거두로서 일찍이 벼슬길에 올라 수많은 疏劄을 올려 외세에 의존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의 간섭을 배격함으로써 반일의 거두로 지목되어 여러 차례 유배되고 일본 헌병대에 체포 감금당하는 등 철저한 반일 구국운동으로 일관하였다.

23) 崔益鉉 <日獄中默會 五絶○十四首>

書生無軍旅之責 八旬非從戎之年 但值此非常之變 上自朝廷 下
及草野 除喑聾跛躄外 其惟曰在家不知者 決是無人心者也 第孽
由自作 累及諸君 慚負多矣 不拘簾格 信心叙實 各贈五言一絶
用備日後掌故 《勉菴集》 卷之二 / 詩

未了桑海劫
重踏石藜場
一敗咎誰執
愧吾乏寸長

右自責

皓首奮畎畝
草野願忠心
亂賊人皆討
何須問古今

右贈金箕述

落日淳昌館
誓死纔二七
惟君先致命
吾輩賴生色

右輓鄭時海

24) 林炳瓚 <敵陣에서>

秋盡鴈稀夜抵年
寒燈獨坐耿無眠
家國荒涼老師病
祇將香願訴蒼天

25) 崔相集 <次勉菴韻>

海外忽傳老相行
初聞涕淚不勝情
熊魚自是難兼取
踏破鯨濤萬里聲

26) 李相斗 <次勉菴韻>

寤寐難忘故國思
九人心緒有誰知
鐘聲又是初長夜
烏語如何欲曙時

27) 安恒植 <次勉菴韻>

羨彼高松十丈身
特立窮冬綠染人
勸君莫愛梧桐樹
秋後看來不是春

病如司馬況途窮
欲哭先看涕淚同
若使太陽明萬里
英雄豈倒積陰中

4. 湖南義陣(호남의진)

호남에서도 이미 을미의병 때 奇字萬 奇參衍 高光洵 등 저명한 유학자들이 봉기하여 광주 나주 담양 등지에서 싸웠으며 후기 의병 때는 더욱 기세를 떨쳐서 많은 의병장들의 한시가 전한다.

28) 申德淳 <獄中에서>

楚山巉巖入天高
 氣勢爭看孰與豪
 若使男兒得死所
 一身輕擲一鴻毛

이는 蒙庵 申德淳(1878~1908)²⁾이 옥중에서 지은 시다. 신덕순은 정미의병 때 고광순 고제량 등과 같이 담양에서 기병하여 동북, 구례 등 지리산 일대에서 싸우다 고광순 등이 전사하자 순창에서 항전을 계속하다가 체포되어 적에게 피살되었다.

2) 신덕균(申德均) : 대한제국기 을사조약 체결 후 고광순 의진에서 참모로 활약한 의병장. 본관은 평산(平山), 초명은 신덕순(申德淳)·신정회(申正會), 자는 정효(正孝), 호는 몽암(蒙庵). 광주(光州) 출신. 신태수(申泰洙)의 아들이다. 일찍이 기우만(奇宇萬)과 전우(田愚)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에 뛰어났다.

* 李錫庸(1878~1914)

임실 출신 유생으로 정미의병 때 진안에서 전주용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크게 기세를 떨쳐 지리산 덕유산을 끼고 진안, 용담, 장수, 남원, 전주 등지에서 싸웠고, 1913년에도 재기를 도모하다 체포되어 대구에서 순절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쓴 〈倡義日錄〉³⁾에 한시 몇 수가 전한다.

29) 李錫庸 <流刑詩> 19수 중 其三

冤血讐天碧劒痕
 枕邊不睡痛胸門
 野馬獨夫將繫頸
 梟懸我國市南門

3) 李錫鏞, <靜齋李錫鏞倡義日錄>(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2집).

30) 全垂鏞 <臨絶詩>

임실 출신 漢學者 海山 全垂鏞(1878~1910)은 정미의병 때 이석용과 같이 봉기하여 싸우다 장성으로 남하 대동창의단을 편성 대장에 추대되어 바다에서 내륙까지 함평, 영광, 고창, 장성, 광산, 니주 일대를 석권하는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書生何事着戎衣
太息如今素志違
痛哭朝廷臣作孽
忍論海外賊侵圍
白日吞聲江水西
青天咽淚雨絲飛
從今別却榮山路
化作啼鵑帶血歸

31) 沈南一 <義兵을 解散하면서>

秋風將卒泣相離
古引山前馬去遲
一掃腥塵終有日
莫違三載死生期

32) 沈南一 <訣故國江山>

文明日月此江山
忽入腥塵晦曖間
未覩一晴歸地下
千秋化碧血痕斑

5. 기타

* 黃鉉(1855~1910)

자는 雲卿, 호는 梅泉. 전라도 시골의 몰락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지사 급제한 뒤에 서울로 가서 姜偉(姜埜)를 스승으로 삼고 이견창, 김택영과 교유하며 시문으로 이름을 얻음. 귀향하여 저술에 힘쓰다가 1910년 〈絶命詩〉 짓고 자결함. 《梅泉野錄》은 1864년에서 1893년까지의 역사를 개관하였으며 1894년 이후의 사태를 상술하였다.

33) 黃鉉 <絶命詩> 四首 中 其一

亂離滾到白頭年
幾合損生却未然
今日眞成無可奈
輝輝風燭照蒼天

四首 中 其三

鳥獸哀鳴海嶽嘖
槿花世界已沈淪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전라남도 구례에서 15일 후 합방 소식 듣고 부자 먹고 자결했으나 이틀 후에 깨어났다. 分財하고 나서 이번에는 아편 먹고 자결했다.

34) 安重根 <舉事歌>

丈夫處世兮
 其志大矣
 時造英雄兮
 英雄時造
 雄視天下兮
 何日業成
 東風漸寒兮
 必成目的
 鼠窺鼠窺兮
 豈肯此命
 豈度知此兮
 時勢固然
 同胞同胞兮
 速成大業
 萬歲萬歲兮
 大韓獨立
 萬歲萬歲兮
 大韓同胞

거사를 앞둔 애국 투사의 넘치는 투지와 조국의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 침략의
 원흉을 처단할 시간이 임박하매 목숨을 나라에 바치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더욱 다지면서 끓어 오르는
 격정을 우리말 가사에 가까운 형태에 담았다.

* 金澤榮(1850~1927)

金澤榮(1850~1927)의 자는 于霖, 호는 滄江, 召護堂. 개성출신으로 조선왕조에서 배척 받은 고려 유민의 식 지냈다. 무반 집안으로 5대조부터 상업에 종사하였다. 갑오경장 후 編史局에서 일하다 1905년 직전 중국으로 망명하여 한문학 유산을 정리하는 한편 저술에 힘썼다. 정통 한문학을 지속하여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중국에서 《燕巖集》 《紫霞詩集》 《梅泉集》 등 편찬했다.

35) 金澤榮 <聞義兵將安重根報國讐事> 其二

海參港裏鵑摩空
哈爾濱頭霹火紅
多少六洲豪健客
一時匙箸落秋風

* 孫文(1866~1925)

중국혁명의 선도자로 1911~12년 중화민국 초대 임시총통을 지냈고, 1923~25년 중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다. 쑨원의 정치이념은 중국혁명의 이념적 토대가 삼민주의는 민족주의·민권주의·민생주의의 3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3원칙은 하나로 연결되어 통일된 사상체계를 형성한다.

36) 孫文

功蓋三韓名萬國
生無百歲死千秋
弱國罪人強國相
縱然易地亦藤侯

* 袁世凱(1859~1916)

청나라 말기의 대군벌. 임오군란(壬午軍亂) 당시 조선에 입국해 내정에 관여했으며, 청일 전쟁 이후 청나라의 신식 군대인 북양군을 창설했다. 신해혁명 이후 중국혁명동맹회를 이끄는 쑨원과의 약조에 따라 선통제를 폐위시킴으로써 청 왕조를 멸망시킨 후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이 되었다.

37) 袁世凱

平生營事只今畢
死地圖生非丈夫
身在三韓名萬國
生無百世死千秋

III. 마무리

의병이 지은 한시는 의병장들의 전사와 체포 처형 등으로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일제 식민통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상당 부분이 인멸되어 지금은 그 일부가 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의병 전쟁을 조직 지휘하였던 인물들의 문집과 수많은 의병 관련 기록을 통하여 적지 않은 작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의병 한시의 작자는 대부분 의병 전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유럽 출신 의병장에 의해 지어졌다. 이들은 모두 한시 창작을 생활화 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체험과 심회를 익숙하게 한시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의병 문학 가운데 한시에는 의병부대 지도층의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의병 한시에는 당시 유럽의 이러한 사상적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편 의병 한시는 5, 7언 절구나 율시 등 근체시가 대부분이다. 극한적 상황에서 많은 말을 길게 늘어놓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짧은 시도 반드시 격식에 맞추기 보다는 뜻을 나타내는 데에 주력한 경우가 많았다. 최익현이 서울의 감옥에서 지은 오언절구 14수를 외우면서 “염이나 격을 맞추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마땅히 외워 전하게 했다가 그대들이 살아 돌아가는 날에 각 집에 나누어 주도록 하라.”⁴⁾라 한 것처럼 절박한 처지에서 格律(격률)을 따질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흔히 의병장들은 문학 수업을 專主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품 자체는 拙朴한 것이 대부분이며 言外의 言을 찾아볼 수 있는 漢詩學의 오묘를 느낄 수 없다⁵⁾하나 의병장 가운데 한시를 남긴 인물들은 각기 유럽에서 명망이 높았던 이들이 대부분이며 한시 창작은 그들의 기본적 소양이었다. 작시의 상황에 따라 격률을 돌아보지 않고 뜻만 나타낼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 격정적 의지와 서정적 형상성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의병의 한시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 한 의병들의 피와 한이 맺힌 기록으로 그 자체로서 피어린 현장 기록일 뿐 아니라 부단히 민족적 저항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요컨대 의병 한시는 한문학이 고식적인 표현의 인습을 벗어버리고 역사창조의 충만한 경험과 만날 수 있게 한 의의를 가지며⁶⁾ 민족사의 수난기에 격동적 역사 현실을 충실이 반영한 민족 문학의 소중한 유산인 것이다.

4) 林炳瓚, , <對馬島日記>(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 2집).

5) 閔丙秀, ‘開化期の 憂國漢詩’ (<開化期の 憂國文學>), 新丘文化社, 1986, P. 56

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86, P. 171~177.